

비뇨기과 전문의 정처영의
술직, 대담한 性

술을 즐겨하는 40대 L씨가 걱정스러운 듯 찾아왔다. "선생님, 회음부가 목직하게 아픈 듯 기분 나쁘네요. 소변도 조금 자주 보고요. 요새는 발기도 잘 안되고 그리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만성적이고 재발 잘한다

자영업을 하는 그는 최근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만성전립선염을 의심한 그는 먼저 L씨의 전립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만져본 전립선은 정상 크기로 별다른 소견이 없었으나, 전립선염 검사에서 염증세포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다.

20대부터 발병할 수 있는 전립선염은 회음부

밤들만한 전립선이 이렇게 힘들게 할줄이야

통증, 아랫배의 목직함, 고환이 당기는 듯한 기분, 빈뇨, 야간뇨, 사정시 통증 등 수많은 증상을 내포한 남성의 골치 아픈 대표적 질병으로 그 수가 상당하다. 세균감염, 소변역류, 임파관을 통한 염증의 전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 가능하나 원인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남성 질환 중 하나이다.

또한 전립선염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악화 인자로 치료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범이며,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는 행위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하므로 이들을 피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온수좌욕, 규칙적인 운동과 성생활 등을 권유 받은 L씨는 그 이후 철저한 금주와 함께 온

동을 위해 요가확원을 다니기로 결심하고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시작했다. 2개월여 동안 꾸준히 치료받은 L씨는 전립선염 검사에서 염증세포의 정상소견을 얻어냈고, 발기력회복과 함께 배뇨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증상에서부터 극심한 증상으로 생활에 현저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까지 그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한 20대 대학생은 20분도 채 안돼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개 1~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립선염은 그 특유의 재발과 난치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며,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닥터쇼핑"을 초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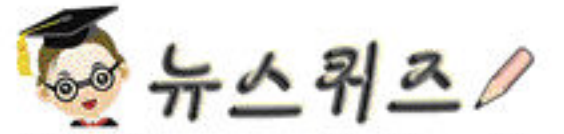
치료를 임하기전 무엇보다 전립선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중요하다. '무조건 치료만 받으면 낫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금주와 규칙적인 운동, 좌욕 등으로 본인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며 의사의 처방에 능동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L씨처럼 발기력저하나 성욕감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전립선염을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금주와 규칙적인 운동, 좌욕 필요

밤들만한 작은 전립선이 사람을 이토록 힘들게 한다는 것이 참 묘하다. 더욱이 노령화될수록 전립선의 또 다른 질환인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립선암의 경우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육식의 증가에 따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50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마팀 피부비뇨기과 원장>



50. 40억 아시아인들의 겨울철 스포츠 축제인 제6회 창춘 동계아시아게임이 4일 끝났습니다. 26개국 1천100여 선수·임원이 참가해 얼음판과 눈밭에서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9개·은 13개·동메달 11개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대회 막판 일본에 추월당하며 지난 1999년 강원도 용평 대회 이후 3회 연속 2위 달성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몇 위일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과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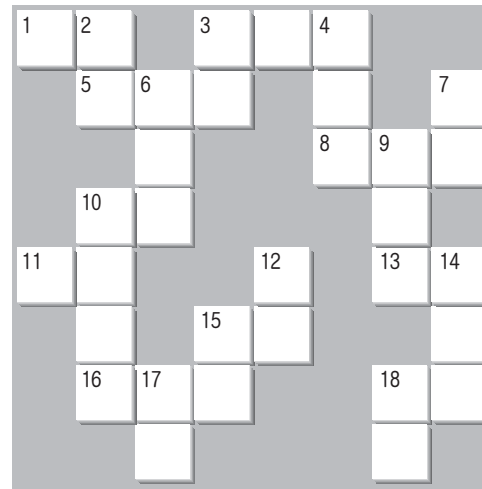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제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려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의 무리. 우리나라는 ~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3.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나 나쁜 환경이나 물욕(物慾)으로 악하게 된다는 학설. 중국의 맹자가 주장했다. 5.문장에서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철수가 책을 읽는다'에서 '책'은 문장의 ~이다. 8.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10.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회사의 대표이사는 ~을 버려야 한다. 11.순백색의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 자기. 13.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침. 또는 어

떤 일을 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함. 그에게 너무 ~하게 굴지마라. 15.절개가 굳은 여자. 16.잡은 고기의 수량. 한때는 국내 연안의 연간 ~이 70만 톤에 달했다. 18.허탈 나위 없이 훌륭한 경치. →비경.

↓ 세로풀이

- 2.숲의 나무를 뺨. 무분별한 ~으로 산림이 파괴된다. 3.다 자란 물고기. 4.읽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 문학 작품 이외의 실용적인 문장을 이른다. 6.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 그들은 적장을 보자 ~이 불타올랐다. 7.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 막내가 결혼하는 것까지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이 없다. 9.지구 밖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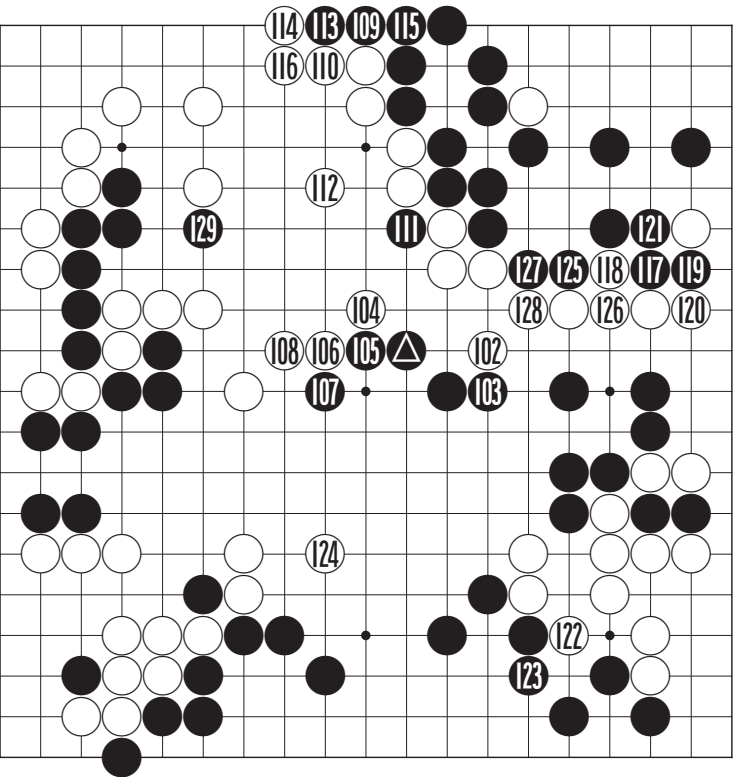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37회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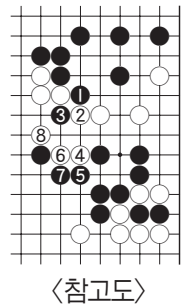
표시한다. 햄버거는 ~이 높은 식품이다. 17.언어 내거나 언어 가짐. 그는 의화 ~을 위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18.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상습 ~혐의를 구소 영장을 신청하다.

- ▲지난주 정답자 조호수·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우진·광주시 북구 운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다른 천체에서 온 생명체. →우주인. 10.한자 너자로 된 관용구를 이르는 말. 12.왕 등 지체높은 사람 앞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여자. →나인. 14.주관이나 선임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을 벗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라. 15.열에너지의 양. 단위는 보통 칼로리(cal)로



미세한 형국 8보(102~129)
백 박은찬 (수문초5)
흑 강지수 (주월초6)



<참고도>

후 강지수군은 백이 4로 붙어나오는 수가 있어서 8까지 백이 살아간다고 한다. 물론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강군의 수읽기와 참을성이 대단하

다. 이렇게 되면 백도 편해졌다. 102를 선수하고 108까지 집을 지어 계가 바둑의 양상이다. 흑 117이 반상최대의 곳이었다. 강지수군은 이곳이 두고싶어 중앙을 쉽게 처리한 것 같다. 백 118은 정수. 이 수로 욕심을 부려 119에 두면 흑이 끼우는 수로 연결이 차단된다. 이 수는 추후 125, 127의 선수끝내가 보장한다는 것도 흑의 자랑이다. 박은찬군도 역시 큰 곳인 124로 달려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백홍서, 원익에서 최철한 제압

백홍서 5단이 지난 2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준결승전에서 최철한 9단을 256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백 5단은 특유의 전투바둑으로 최 9단과 난전을 벌인 끝에 마무리 단계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를 누렸다. 백 5단은 송태곤 8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안조영 9단과 오는 9일부터 결승 3번기를 갖는다. 광주 출신인 백 5단은 이 대회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7연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34>

오하이오 니혼고 <834>

니하오 쑹구위 <25>

한자 이야기 <452>

He's a fair-weather friend
그는 다급할 때는 믿을 수 없는 친구야
A:I used to see David all the time.
B:Yeah, I remember. You two used to hang around all the time.
A:But ever since I lost my job, he never comes to see me.
B:I guess he's a fair-weather friend.
A:전에는 데이비드를 항상 만났었는데.
B:그때, 기억난다. 자네를 둘은 언제나 같이 다녔지.
A:그러나 내가 실직한 이후로는 쭉, 그는 한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대네.
B:그는 급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
all the time : 언제나, 아무 때라도
hang around : (아무와 함께)시간을 보내다(with) : (구어) 어울림[꾸물]거리다
He's a fair-weather friend.= You can't depend on him. = He's not real friend.

いやあ、實は私は、地理音痴なもので
아, 사실 저는 지리감각이 둔해서
A:あれ、そっちへ行ったら、貿易センターには行きませんよ。
B:あ、そうですか? てっきりこっちだと思って。
A:貿易センターだったから、そこを右に曲がって、すこし戻らないと~
B:いやあ、實は私は、地理音痴なもので~
A:저어? 그쪽으로 가면 무역센터건물로는 못 가요.
B:아, 그런가요? 틀림없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서~
A:무역센터건물이라면 거기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되돌아오지 않겠나~
B:아, 사실 저는 지리감각이 둔해서~
地理(ちり): 지리
音痴(おんち): 특정한 감각이 둔한사람
てっきり: 틀림없이 꼭
戻(もど)る: 되돌아오다

你买了什么
너 뭐 샀니?
A: 小英, 下午你去哪儿了?
Xiao Ying, xiahou ni qun'er le?
아영아, 오후에 어디 갔어?
B: 我和一个朋友去逛街了。
Wo he yige pengyou qu le guangjie le.
난 한 친구와 함께 쇼핑을 했어.
A: 你买了什么?
Ni mai le shen me?
너 뭐 샀어?
B: 我买了...件T-表, ...一件T-表...一件T-表, ...
Wo mai le yijian T-biao, yijian T-biao, yijian T-biao.
난 T-셔츠를 샀어.
A: 小英, 你买的T-表?
Xiao Ying, ni mai de T-biao?
아영아, 너 샀어?
B: 是啊, 买了三件T-表.
Shi de, mai le san jian T-biao.
네, 샀어. 세 개 샀어.
T-表: T-셔츠
T-表: T-셔츠
T-表: T-셔츠

寸鐵殺人 (촌철살인)
마디 촌, 쇠 철, 죽임 살, 사람 인
촌철살인(寸鐵殺人)은 한 치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다. '촌(寸)'은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이므로, '촌철(寸鐵)'은 한 치도 못되는 무기이다. 따라서 촌철살인은 간단한 경고(警告)로 어떤 일의 급우를 끌러 사람을 감동시킴을 비유한다. 이 말은 남송(南宋)의 유학자 내대경(羅大經)이 찾아오는 손님들과 주고받은 청담(淸談)을 기록한 '학림옥로(鶴林玉露)'에서 나온다. 그 가운데 종교선사가 다음처럼 선(禪)에 대하여 논한 곳이 있다. "비유하면 한 수레의 병기(兵器)를 싣고 와서 하나를 희롱하여 마치면 또 다른 하나를 꺼내 가지고 와서 희롱함과 같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단지 한 치도 못되는 쇠붙이만 있어도 곧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칼날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속된 생각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한 수레 분의 병기'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성급하게 이력자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여 실패함이다. 모든 일에 온 몸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일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간단한 한 마디 말과 같은(寸鐵) 상대편의 허를 찔러 당황하게 만들거나 감동시키게 된다(殺人)고 하겠다.

더마플라스트 Dermalplast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062-383-5883